

“면역력 높이는 천연 미네랄” 해남産 세발나물, 본격 출하

바닷가 간척지에서 해풍맞고 자란 겨울철 신선채소 인기

해풍을 맞고 자란 천연 미네랄의 보고, 해남 세발나물 출하가 시작됐다.

해남군 문내면 예라마을을 중심으로 17농가, 20여ha의 면적에 재배되고 있는 해남 세발나물은 11월 말부터 수확을 시작해 내년 5월까지 생산된다.

소금기가 남아있는 바닷가 간척지에서 자생하던 세발나물은 맛이 담백하면서도 향이 뛰어나 겨울철 미각을 살리는 채소로 최근 도시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섬유질이 풍부해 신선채소를 찾기 힘든 계절의 영양균형을 맞춰주고, 해변에서 자라기 때문에 칼슘과 칼륨, 천연 미네랄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식품으로도 주목 받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세발나물 재배에 성공, 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적극적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매년 1,000여톤을 수확, 20



여역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대표적인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남 세발나물은 친환경 무농약으로 재배돼 품질이 고르고 외관이 깨끗하며, 영양과 식감, 저장성이 높아 학교 급식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국 세발나물 중 유일하게 지리적 단체표장 등록으로 브랜

드화에 성공해 수도권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해남 세발나물의 명성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향후 GAP 인증을 취득하는 등 품질 고급화와 판로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동채본부

장흥군 상수도 보급률 확대...적극 수도 행정

환경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장흥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91.5%로 집계되었다.

장흥군은 2026년까지 99.2%의 보급률 향상을 위하여 상수관로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부터 올해까지 귀농인 등 원거리 주거 시설(외판 집) 64세대에 8억 원의 군비를 투입해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등 지하수 고갈과 이상 기후로 인한 가뭄의 선제적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군민들에게 차별 없는 물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 9억2천445만원 예산 확보

강진군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지역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 중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문화 관광형시장)과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돼 총 9억2천445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문화관광형시장)은 강진중앙로 상가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2년간 사업비 8억8천만 원(국비 4억4천만 원, 군비 4억4천만 원)을 투입한다.

“문화가 넘치고 감성이 열리는 중앙로 상가 만들기”를 목표로 관광객 유입 촉진 사업, 자생력 강화 사업, 홍보 이벤트 강화사업 등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한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이 밖에도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강진읍 전통시장에 4천445만 원을 투입한다. 행사 마케팅, 상인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통시장 운영 및 고객서비스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준범 일자리창출과장은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많이 위축된 가운데, 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이 강진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강진군, 내년부터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 원 지원

1월 1일 이후 전입자 대상...강진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강진군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매년 감소하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을 새로 제정해 내년 1월 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2009년 ‘강진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가 제정돼 시행된 후 11년 만에 기존 조례는 폐지되고 새로운 조례가 시행되는 것이다.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 등을 반영하고 각종 인구시책사업 지원 대상 및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해 시행한다.

새로운 조례 시행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강진군 전입장려 지원금이

대폭 상향된다. 타 시·군에서 살다가 군으로 전입한 사람에 대해 상수도요금 등 1인당 3만 원 씩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전입한 1인당 10만 원 씩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전입 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하도록 해 지원금만 받고 다시 전출하는 등의 예산 낭비 논란을 사전 차단하고, 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인은 모바일과 지류(종이)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로 선택할 경우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전입장려금 신청은 이사한 주소 관할지 읍·면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후 신청하면 된다.

이준범 일자리창출과장은 “올 초부터 시작한 강진품에(愛) 살기운동을 관내 기관·단체·기업은 물론 강진에서 살고 있으면서 주소는 관외에 있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입장려금 확대 지원으로 강진품에 살기운동이 내년에는 더욱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코로나 비상’ 완도군 낚시어선 입출항 통제

세 번째 행정명령...오늘부터 30일까지 조업 금지



완도군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낚시어선 조업금지에 따른 입출항 통제 행정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완도군에 등록된 낚시어선이다.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다 타 지역 확진자 방문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됨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고 완도군은 설명했다.

이에 앞서 완도군은 지난 3·4월과 9월에도 낚시어선 조업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어 이번이 세 번째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를 찾는 낚시객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지금 시점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완도=김광수기자

진도군, 전남도 친환경농업 대상 수상

유기농 인증 면적 작년 대비 421% ↑...친환경농업 최고 평가

진도군이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0년 친환경농업 업무 종합평가에서 대상 수상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대상 수상은 2015년 이후 5년만으로 전남도내 친환경농업에 대한 진도군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진도군은 논의 지력 증진을 위한

친환경단지 벗짚환원사업을 비롯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구기차 비가림하우스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자부담 경감 지원 등 42개 사업에 총 61억원을 진도군비로 지원해 친환경 유기농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특히 올해 친환경 인증면적 3,475ha 중 유기농 인증면적이 2,500ha로 지난해 대비(602ha)

421% 증가했다.

또 과수·채소 인증면적이 지난해 18ha에서 올해 67ha로 273%나 증가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코로나19 확산과 여름철 장마, 태풍 등 자연 재해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컸지만 어려운 농업 현장에서도 곳곳이 친환경 농법을 실천해준 농업인들이 있어 가능했다”며 “진도 솔비치, 송가인 관광 특수효과와 연계하여 친환경 농산물 판매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도=조광수기자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